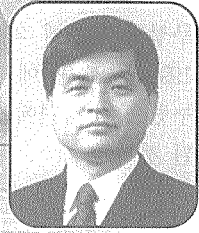


미국 IT산업과 컴퓨터 CEO



본회 전자산업연구소 소장
경제학박사 윤 동 훈

1. 머리말

경제는 등락을 거듭하는 속성이 있다. 한동안 나락까지 떨어졌던 경기가 근간 대부분 국가에서 회복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90년대 10여년간 장기 호황을 누린 미국 경제는 지난해 곤두박질을 했다. 여기에는 작년 9월 11일 대량 인명 살상과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를 초래한 테러가 기왕에 하강곡선을 걷고 있던 경제에 크나큰 쇼크로 작용하였다.

제조업 신규 주문은 감소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소매판매는 둔화되고 있었다. 동시에 이자율은 유례없이 낮아졌으며, 감세 환급은 경제에 호재가 될 잠재적인 대기수요화를 촉진할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판매가 꾸준히 강하게 유지되었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안정을 되찾을 무렵이었다.

그러나, 테러쇼크는 장대줄 위의 균형을 일시에 무너뜨렸다. 테러의 물질적, 심리적 공황은 피할 수 없었다. 글자 그대로 경기 후퇴가 일격에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여행과 항공업계의 부도가 잇따라 미 정부의 구제금융이 실시되었고, 소매판매의 감소가 전국 곳곳에서 감지되었던 것이다.

테러에 문혀 간과되었던 경제의 자생력은 오히려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작년 4분기의 크리스마스 특수가 예년만큼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예상보다는 상당한 호조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2001년 3분기를 장기 호황의 끝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미 최저 바닥을 통과하였다는 호소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터널을 통과하였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캄캄한 골짜기라고 생각하였던 상황이 앞을 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지경까지 이미 이른 것이다. 이전 경기 후퇴는 1991년 1분기에 마무리를 지은 바 있다.

2. 제반 거시지표 호전

올해 경기도 수많은 내외요인에 의해 상호 복잡하게 좌우될 것이다. 기업의 계획을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본다면, 공개적인 예산이나 기업의 확장, 시장 개척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보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래서 금년 2002년의 경

기가 작년보다는 호전될 것이지만, 두해 전의 4%대 성장세를 되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중론이다.

미 상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총생산(GDP)은 1998년, 1999년, 2000년에 각각 4.3%, 4.1%, 4.1%의 호황을 누렸으나, 작년에는 1.1%로 딱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기업투자는 같은 기간에 12.5%, 8.2%, 9.9%, -5.2%이고, 산업생산은 4.2%, 4.1%, 5.6%, -4.5%이며, 소비자 지출은 4.8%, 5.0%, 4.8%, 2.3%이다. 소비자지출이 작년에도 플러스를 기록함으로써 국내총생산의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기업이윤은 -6.8%, 6.1%, 6.2%, -12.4%이다. 기업들이 작년에 사상 최악이라는 체감온도를 느꼈음이 <표1>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생산자 가격인플레이션은 -0.8%, 1.8%, 3.7%, 2.7%이다. 금년에는 이 지표들이 공히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GDP가 1.5%, 기업투자가 3.5%, 산업생산이 2.4%, 소비자지출이 3.3%, 기업이윤이 4.4%, 생산자 가격인플레이션이 1.9%로 각각 예상되고 있다.

전자부품으로 보다 세분하여 보면, 미국의 컴퓨터는 2000년에 전년보다 35.5% 증가(962억 달러)하였으나 작년에 17.9% 감소하였다. 저장장비는 2000년에 전년보다 7.6% (150억 달러) 작년에 14.4% 연속 감소하는 불운을 겪었다. 국방을 제외한 통신설비는 같은 기간 중 19.3% 증가(1107억 달러)에서 25.4% 감소하였다.

국방용 통신설비는 7.9% 증가(32억 달러)에서 2001년에도 13.1%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미국이 국방을 중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가정용 AV기기는 2000년에 28.8% 증가(117억 달러)하였으나, 2001년에 8.2% 줄었다. 반도체는 2000년에 27.7% 증

가(1077억 달러)에서 2001년에는 19.6% 감소하였다. 전자부품은 12.8% 증가(702억 달러)에서 작년에 무려 27.2% 감소하였다.

금년의 전자부품은 대체로 밝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컴퓨터는 10.3%, 저장장비는 16.6%, 가정용 AV기기는 3.6%, 반도체는 8.5%, 전자부품은 5.5% 각각 증가할 것이다. 또 국방용 통신설비는 18.0%로 증가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나, 비국방용 통신설비는 4.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GDP의 약 30%를 점하고 있는 미국경제는 여전히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에 비관적인 측면이 부상되었다면, 금년에는 낙관적인 측면이 점차 전면으로 다가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금리현상과 저인플레이션현상은 연준의 금융완화정책을 계속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세계각국의 글로벌 금융화 흐름이 유지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약화된 세계수요는 상품과 자원의 가격을 저수준에서 억누를 것이고, 동시에 임금과 비용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둔화시킬 것이 자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테러 공격을 극복하기 위해 7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경제촉진패키지가 정부와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말경 실업은 급격히 올라가고 생산이 줄어드는 악재가 돌출하였다. 호재와 악재가 함께 오가면서 경제에 대한 시각이 한 방향으로 뚜렷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혼재된 시장에서도 한편으로 다행한 것은 건축시장이 과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메이커나 셀러가 넘쳐난 재고를 해소하고 있음에 따라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911테러 이후 미국경기와 세계경기를 더욱 비관적으로 하향 예견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하였



다. 병자에게 치명타를 가한 격이라는 논리이다. 이 당시 글로벌 후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경기가 충격을 받으면 대국에서 소국으로 가는 일파만파식이었으나, 이제는 세계화라는 추세앞에서 각종 경제구조와 기능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쇼크는 동시에 세계에 전염되고 있는 셈이 되고 말았다. 지정학적 위치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개가 완전히 걷히지 않는 경제상황이 전자산업에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전자시장에 긍정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여건 호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디지털 정보화로 가는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디지털전자기기의 수요가 다시금 증가하게 될 것이고, 특히 테러사건은 전자 보안장비의 붐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에 어두움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햇살이 내리고 있는 것이다.

〈표1〉 미국 전자산업 추이

(단위 : %)

구분	2000년	2001년(P)	2002년 추정
컴퓨터	35.5	-17.9	10.3
저장장비	-7.6	-14.4	16.6
비국방통신장비	19.3	-25.4	-4.4
국방통신장비	7.9	13.1	18.0
가정용AV기기	28.8	-8.2	3.6
반도체	27.7	-19.6	8.5
전자부품	12.8	-27.2	5.5

자료 : US Commerce Department

3. 첨단제품 교역 증가세

첨단기술을 장착된 제품의 교역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국 첨단제품의 수출과 수입은 공히 2배 가까이 늘었다.

먼저 수출을 보면, 컴퓨터와 사무장비는 1994년에 352억 달러에서 2000년에 577억 달러로 64% 증가하였고, 통신장비는 130억 달러에서 269억 달러로 106% 증가하였다.

전자부품은 97억 달러에서 221억 달러로 127%, 반도체는 251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138%, 전자 의료장비는 53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52% 각각 증가하였다. 가정용전자제품은 78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28% 증가하였다.

수입을 보면, 컴퓨터와 사무장비는 1994년에 495억 달러에서 918억 달러로 85% 증가하였고, 통신장비는 154억 달러에서 465억 달러로 201% 증가하였다. 전자부품은 116억 달러에서 238억 달러로 104%, 반도체는 261억 달러에서 483억 달러로 85%, 전자 의료장비는 33억 달러에서 57억 달러로 72% 각각 증가하였다.

수지측면을 살펴보면, 컴퓨터와 사무장비는 1994년에 -143억 달러에서 2000년에 -340억 달러로 적자가 확대되었다. 가정용전자제품은 -112억 달러에서 -168억 달러로, 통신장비는 -23억 달러에서 -196억 달러로 각각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자부품은 -19억 달러에서 -17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반도체는 -9억 달러에서 +116억 달러로 흑자로 돌아섰고, 산업용 전자제품은 76억 달러에서 116억 달러로 흑자가 확대되었다. 전자 의료장비도 19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수지가 나아졌다.

컴퓨터 사용자수는 미국이 단연 앞서고 있다. 미국전자협회(AEA) 등의 2000년 기준에 따르면, 미

時事論評 · 時事論評 · 時事論評 · 時事論評

〈표2〉 미국 첨단기술 제품 교역

(단위 : 억 달러)

구 분	1994년		2000년		증감율(%)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컴퓨터 사무기기	352	495	577	918	64	85
가정용전자	78	191	100	269	28	41
통신장비	130	154	269	465	106	201
전자부품	97	116	221	238	127	104
반도체	251	261	600	483	138	85
산업용전자	166	90	304	187	82	108
전자 의료기기	53	33	80	57	52	72
영상기기	29	57	71	93	145	64
계	1,159	1,401	2,225	2,714	-	-

자료 : US Bureau of the Census

국의 컴퓨터 사용자수는 159백만명이고, 일본이 49백만명, 독일이 30백만명으로 2, 3위를 점하고 있다. 영국이 4위로 26백만명, 프랑스가 5위로 21백만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10백만명으로 10위에 있다.

인터넷 사용자수도 미국이 1위를 달리고 있다. 2000년 기준,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수는 133백만명이며, 독일이 21백만명으로 2위를, 일본이 20백만명으로 3위를 나타내었다. 영국이 17백만명으로 4위를, 캐나다가 13백만명으로 5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한국은 3백만명으로 16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의 전자메이커 실적에 의하면, 1위는 IBM이 883억 달러의 전자매출을 올렸다. 2위는 마쓰시타(Matsushita)가 716억 달러를 보였다. 후지쯔(Fujitsu)가 498억 달러로 3위를, 휴렛팩커드(HP)가 490억 달러로 4위를, NEC가 484억 달러로 5위를 각각 랭크되었다.

소니(Sony)가 401억 달러로 8위에, 인텔(Intel)이

337억 달러로 11위에, 델컴퓨터가 318억 달러로 14위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삼성(Samsung)이 271억 달러로 21위를, LG전자가 117억 달러로 37위를 각각 나타내었다.

4. 최고의 컴퓨터 CEO

미국 IT산업이 하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들은 상이한 실적을 낳고 있다. IT산업의 상징인 컴퓨터업계의 몰락이 특히 심하였다. 하지만, 정보통신시대의 총아인 컴퓨터업계의 최고가 대개 전 산업계의 최고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업계는 델컴퓨터(DELL COMPUTER CO.)가 정상을 차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델은 최고의 연봉을 받았다. 델은 대학을 그만두어 학위가 없다. 대학 학위를 얻어야 길이 열린다는 향간의 이야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델은 학교를 다닐 때, PC가 실제 부품의 비용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컴퓨터를 조립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가격, 품질, 서비스면에서 컴퓨터가게와 경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학을 떠나 1984년에 델 컴퓨터를 설립하였다. 생각은 단순한 것 같지만 당시로는 혁신적이었다. 전략이란 것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메이커에서 곧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조립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그 모델은 델을 시장에서 리더의 위치로 밀어올리고 경쟁자들이 견디지 못하도록 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중간단계의 부가 비용이 없어지면서 회사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또한 재고를 낮게 유지하고, 신기술의 도입이 용이하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칠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고 그들의 요구에 즉시 부응하며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은 델이 성공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커머스의 수단으로서 인터넷은 유용하기 그지 없다. 1994년에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1996년에 온라인 스토어를 시작하였고, 이제 최대의 온라인 컴퓨터시스템의 판매망이 되었다. 델의 판매의 약 반을 점유하게 된 것이다.

웹사이트는 철저히 고객화되어 있다. 소비자가 검색, 주문 추적을 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거래도 가능하다. 최근 컴팩과 휴렛패커드가 합병이 성사된다면 세계PC시장의 판도가 변화할 것이다. 합병이라는 시장혼란을 틈타 델회장은 점유율을 증가할 수 있는 호기라고 언급하였다.

델 컴퓨터는 14.5%의 시장점유율로 1위이며, 컴팩이 11%로 2위이다. 델회장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40%까지로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17년 전에 600만 달러의 판매에서 이제 320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사세는 세계로 뻗어나가, 노동자들이 38천명에 달하고 있다. 델회장은 2000년에 최고의 연봉을 받는 기업인이 되었다. 스타트업에 힘입어 236백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두 번째가 오라클의 레이먼드 레인이 233백만 달러를, 시스코시스템스의 존 챔버스가 157백만 달러로 3위에 랭크되었다.

〈표3〉 미국 CEO 연봉 (2000년)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직 함	회 사	연 봉
1. 마이클 델	의장, CEO	델컴퓨터	235
2. 레이먼스 레인	회장, CEO	오라클	233
3. 존 챔버스	회장, CEO	시스코시스템스	157
4. 모튼 탑퍼	자문역	델컴퓨터	156
5. 제프리 레이커스	그룹 부회장	마이크로소프트	145

時事論評 · 時事論評 · 時事論評